

결핵, 2030년까지 대한민국서 완전 퇴치

‘결핵 사망률 세계 최고 국가’ 불명예 지우기 특단 조치
전남의료계도 세계 최고수준 발병을 해결 기대

정부가 203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결핵을 완전 퇴치에 나선다. 정부는 4일 ‘결핵 사망률 세계 최고 국가’라는 불명예를 지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의료계에서는 전남지역의 세계 최고수준 결핵 발병을 또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결

핵발생률·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없애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수립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8~2022년)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 총회가 2030년까지 전 세계의 결핵유행 조기 종식을 결의함에 따라 변화된 상황을 반영, 사전예방·조기발견·환자 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보다 강화된 범정부 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 강화 ▲생애주기별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세부내용으로는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강화하기 위해 검진 기회가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재가 외상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 비정규직 20~30대 등에도 검

진을 지원하여 결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 결핵퇴치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 등 지역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역특성에 맞는 결핵사업을 발굴·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남의 결핵 신환자수는 인구 10만명 당 75.6명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이는 전국 평균 51.5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에 전남 의료계는 정부의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이 전남지역 결핵환자 감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4차 산업혁명 시대 자녀 진로·학습 설계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강연회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 강연회를 실시했다. **〈사진〉** 이날 강연회는 김승 학교교원캠퍼스 연구교수가 강사로 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녀 진로·학습 설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승 교수는 미래사회의 직업 변화와 청소년이 바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게 될 미래 직업과 현재 직업의 융합 방법 및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또한 자녀들이 창조적인 직업을 만

들어가는 청소년으로 성장하기 위한 부모의 역할과 도움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차은선 센터장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 사·구센터가 협력해 심리·정서적 지원과 함께 부모들의 양육태도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부모교육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과 가족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최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에서 열린 ‘금연·절주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사장에 마련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광주시 동구가 ‘제32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31일)을 맞아 최근 3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금연·절주 캠페인’을 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은 최근 여름밤 나들이 장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 흡연과 과도한 음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민건강보

“말하지 않아도 금연, 취하지 않아도 절주” 광주 동구, 금연의 날 문화전당 하늘마당서 캠페인

협공간 광주동부지사·광주금연지원센터·광주동구중독관리센터 등과 합동으로 ‘말하지 않아도 금연, 취하지 않아도 절주’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연·절주 구호 캠페인 ▲금연버스 체험 ▲금연·절주 나도 한마디! 코너 ▲흡연유해성을 알리는 배너 전시 ▲가상 음주체험 및 알코올 분해능력

테스트 ▲미각테스트 ▲겉기실천 홍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돼 음주·흡연의 폐해에 대해 소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간접흡연·음주 폐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자 실시하게 됐다”면서 “문화전당은 부지 전체가 금연구역인 만큼 이용객들이 시설 내 금연과 절주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남구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해 선보인 ‘생활 관리사와 함께하는 1대 1 홈 트레이닝(home training)’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4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254곳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실시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남구는 지난해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홀

광주 남구 생활관리사 1대 1 홈 트레이닝 보건복지부 재활사업 우수 프로그램 선정

로 사는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생활관리사 43명을 대상으로 ‘오타고 운동법’(뉴질랜드 오타고대학에서 개발한 국제 공인 낙상 예방 운동법)과 낙상 대처요령 등 운동지도자 양성 교육을 진행해 건강리더로 육

성했다. 이후 생활관리사들을 1인 가구 재가 장애인 43세대에 파견, 1대 1 매칭을 통한 홈 트레이닝을 실시해 우수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생활관리사와 재가 장애인간 1대 1 홈 트

장애인식 개선 ‘스토리텔링 공모전’ 밀알복지재단, 7월 14일까지 접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제5회 스토리텔링 공모전’이 열린다. 4일 밀알복지재단에 따르면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장애인 가족, 지인 등 장애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7월 14일까지 가능하며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응모작을 첨부해 이메일(pr@miral.org) 또는 우편(서울시 강남구 방고개로1길 38, B동 101호 밀알복지재단 공모전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작품 접수 선착순 20명에게는 참가상으로 기념품을

증정한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심사를 거쳐 8월께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와 개별연락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 장관상(1명·100만원) 등 총 19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총상금 600만원을 수여한다. 당선작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콘텐츠로 활용된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신창동 근린상가, 급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1억
- 매매 - 7억 5천만원

문의. 010-6834-7400